

“천사들이 찾아왔다... 고마워요, 광주의 따뜻한 온정”

‘희망나무 긴급구호단’ 타보콘시에서 의료활동

한국 의료진 중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 수백명 진료 라면·식수도 전달... 박수 치며 “고마움 잊지 않겠다”

타보콘시=박정렬 기자

“천사가 찾아왔다.”, “광주에서 와 있다는 걸 잊지 않겠다.”

태풍 하이옌이 휩쓸고 간 타보콘시를 찾은 광주 의료진들에 대한 필리핀 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의료진인 광주시약사회장, (사)희망나무 서민들은 아끼던 물과 과자 등을 전달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현지에서 도착한 (사)희망나무 긴급구호단은 민간 의료진으로서 국내 최초로 필리핀을 찾아 음식 및 약품지원, 의료 활동으로 신음하는 현지인들에게 광주의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긴급구호단은 이틀간 비사야 제도 세부섬의 타보콘시의 피오(pio)동과 일리한(ilihan)시를 찾아 진료 활동 및 긴급 수술 활동을 펼쳤다.

박석인 첨단미르치과 병원장을 팀장으로 윤장현 아이안과 원장, 유재신 광주시약사회장, (사)희망나무 서민들 국제교류이사 등 4명으로 꾸려진 긴급구호팀은 쉬지 않고 환자들을 돌렸다.

인구 700여명에 불과한 타보콘시 피오동은 인근에 보건소에 병원 시설이 전무한데다, 태풍으로 보건소마저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를 당해 광주 의료진이 진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인근 마을사람까지 몰려 복병을

이뤘다. 윤 원장은 안과 진료 및 내·외과 진료를, 팀장인 박 원장은 치과 및 외과 수술을 중심으로 진료를 펼쳤고 유 회장은 곁에서 환자 상담을 통해 임신, 영양 상태 등을 체크해 약을 처방했다.

피오동에서는 오전 10시부터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마을 회관에서 어린이 110명, 어른 140명 등 모두 25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구호팀이 자리를 뜨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의료진들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다. 상처의 고통을 잠재우거나, 고열과 기침을 내뿜는 환자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환자일 수록 더욱 정성을 다해 돌봐주는 모습에 주민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튿날에는 “한국 의료진이 왔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타보콘시 최대의 도심가인 일리한에서는 수백여명의 환자들이 모여 들었다.

의료 활동 뿐 아니다. 구호팀은 피오동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방고음 마을의 어려운 상황을 전해 듣고 진료와 함께 라면과 식수 등을 전달하고 어린이를 중심으로 진료 활동도 펼쳤다.

태풍으로 집을 잃은 코라손 수아핀(여·67)씨는 “천사들이 찾아왔다”며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며 거듭 감사의 인사 보냈다. /halo@kwangju.co.kr

준비에서 출국까지, 단 이틀 만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하는 촉박한 일정에도 라면과 500만원 상당의 의료품, 각종 수술장비를 차질 없이 준비한 점도 완벽한 구호 활동에 한몫을 했다.

광주 의료진의 수차례에 걸친 세계 ‘의료나눔’ 활동의 효과였다. 희망나무 긴급 구호단의 경우 지난해 필리핀 마닐라 수해 지역인 라구나주 산페드로시 인근의 자치구를 찾았고, 캄보디아에 ‘광주진료소’ 1호를 세울 때도 주축이 되는 등 전 세계 구호현장을 빠짐없이 돌아다녔다.

세부시 신디아 필리핀 보건부 세부 총괄담당자는 “태풍으로 고통받는 필리핀을 도와달라는 요청에 3000km가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누구보다 먼저 광주에서 와줬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이번 구호활동에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후원한 생수 ‘빛여울수’가 목타는 필리핀 피해지역 주민들의 갈증을 덜어줬고, 영암마트는 컵라면을 비롯한 식료품을 제공하는 등 광주지역 각계의 온정도 함께했다.

박석인 첨단미르치과 원장은 “집이 없고, 병으로 아파해도 웃을 짓는 이들을 보며 오히려 가슴에 따스함을 채울 수 있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광주 정신’의 세계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halo@kwangju.co.kr



17일 필리핀 세부섬 타보콘시 피오동 마을에 설치된 임시 진료소에 (사)희망나무 긴급구호팀의 진료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수백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복병을 이루고 있다. /타보콘시=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국회, 필리핀 지원 촉구 결의안 의결

의원 1인당 10만원 위문금

“한국인 56명 모두 안전”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이 발생한 필리핀에 대한 위로·추모와 우리 정부의 신속한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사랑하는 가족, 친지, 친구들을 잃어 큰 슬픔에 빠져 있을 필리핀 공화국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심심한 위로를 표시하면서 이들의 고통과 슬픔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가 필리핀에 대해 신속하게 긴급구호 및 피해복구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교민 실종자들의 안전과 무사복귀를 기원하며, 정부가 실종된 교민들의 소재 파악과 안전확보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필리핀 공화국 태풍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은 필

리핀 출신의 결혼 이주여성으로서 ‘다문화 국회의원 1호’로 국회에 입성한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제출했으며,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야의원 총 282명이 함께 했다.

국회는 ‘필리핀 지원 위문금’ 건을 의결, 국회의원 1인당 10만원을 각출해 위문금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외교부는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 한국인 체류자 56명의 안전을 모두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알려진 체류자의 안전은 모두 확인했지만 우리 국민의 추가 체류 여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타클로반 현지로 급파된 정부의 신속대응팀은 전날 새벽 미군 수송기편으로 국민 9명을 마닐라로 후송했다.

정부는 추가로 안전이 확인된 국민 체류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우리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안전지역으로 후송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공군 수송기 C-130 2대를 파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망·실종 5000명 육박...54만 가구 파손

최근 필리핀 중부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태풍 하이옌에 따른 사망·실종자 수가 17일 오전(현지시간) 현재 49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또 레이테 주 등 44개주 1만 여곳에서 약 1150만명이 피해를 보고 완파 또는 부분 파손된 가옥 역시 54만 가구를 넘어선 등 전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필리핀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는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인프라·농경지 등의 물적 피해가 2억36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태풍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제사회와 국내 지원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당국은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모두 2억7257만 달러가 이재민들에게 지원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고통받는 필리핀을 도와주세요”

이주 여성 30여명 광주시민들에 도움 호소... YMCA 등 시민사회단체 모금운동

“고통받는 필리핀을 도와주세요.” 광주YMCA와 (사)주가족복지회는 지난 15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슈퍼 태풍 하이옌으로 피해를 본 필리핀 주민들을 돕기 위한 모금 행사를 개최했다.

이주 여성 30여명은 이날 태풍 피해 사진을 피켓 대신 들고 나라 시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4년 전 필리핀 사발에서 온 아나리사(여·34)씨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오빠, 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큰 걱정”이라며 “지난주 목요일 밤 아버지랑 통화한 게 마지막”이라고 말했다.

메리안(여·47)씨도 “생사가 확인된 가족도 많지만, 무엇보다 집을 잃어 먹고 잘 곳이 없어 걱정”이라며 “어려울 때 작은 도움이라도 주변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호소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모금활동을 시작으로 필리핀 돕기에 나섰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이주민회

관과 필리핀인들로 구성된 ‘광주 필리핀 공동체’는 이날 성금 모금활동에 돌입해 시민이 후원해준 의류, 생수, 생필품 등을 모아 태풍 피해지역으로 보낼 계획이다.

광주국제교류센터도 베품시장을 통해 모은 의류와 긴급 구호품을 필리핀에 보낼 계획이다. 문의: 광주 YMCA(062-234-0074),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예비협업체 모집 및 컨설팅 지원 안내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지원원이 소상공인 예비 협동조합 대상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해볼까?



1. 예비협업체 모집

■ 신청대상 : '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에 관심있는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업체 * 향후 소상공인 사업자 협동조합 설립 의사가 있는 자 포함

■ 참여제한

- ①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② 설립 예정 협업체 업종이 지원제의 대상*에 해당하는 협업체

■ 예비 협업체 구성요건

- 위의 참여제한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예비)소상공인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 협업체 * 예비 소상공인 : 예비 창업자(비 사업자)를 포함하여 지칭

■ 신청방법

- 소상공인지원원 협업화 사업관리 홈페이지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협업화 사업관리 홈페이지 : http://coop.seda.or.kr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위치 안내 : 소상공인지원원 홈페이지 참조(www.seda.or.kr)

■ 신청기간 : '13. 11. 15(금) ~ 11. 30(토)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란?

동업종 또는 이업종간 협업을 통해 공동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결성된 5인 이상의 소상공인 사업자 협동조합

2. 예비협업체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 1개 업체당 컨설팅 최대 10회 * 컨설팅 지원비용은 국비지원(무료)

■ 컨설팅 지원내용

- 협동조합 이해 : 개념, 협동조합 기본법, 국내의 성공모델 등
- 협동조합 설립 : 정관작성, 설립신고, 설립등기 절차 등
- 협동조합 운영 : 구성원 관리, 갈등관리, 이윤 배분방법 등
- 기타관련 사항 : 예비 협업체가 관심있는 내용을 중점 지도

■ 지원절차

- 신청서작성 → 컨설턴트 배정 → 컨설팅 실시 * 협업체가 선호하는 컨설턴트로 지정

3. 문의처

■ 소상공인지원원 소상공인지원센터 : ☎ 1588-5302
■ 소상공인지원원 협업지원부 : ☎ 042-363-7687,7685

소상공인 협동조합 모범사례

동네 빵집 사장님들이 함께 개발·운영하는 협업화 - 공동브랜드 및 로고제작, 고객관리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하여 참여업체 평균 25%의 매출 성과 등 꾸준한 성장

